

탄탄한 체육시설 인프라 보유

고창군이 든든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립체육관 등 8곳의 실내체육관·생활체육경기장 등 갖춰
고수면에 100억원 규모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들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들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
전국체전 기간 중 고창서 유도 경기... 내년 도민체전, 고창서 열려



고창군은 군립체육관 등 8개소의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경기장, 생활야구장, 전천후 테니스장 등 탄탄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고수면에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운곡 탐사르습지와 동양 최대의 고인돌군, 청정갯벌 등 뛰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전통문화예술의 성지로 한국의 세익스피어라는 칭호를 얻은 동리 신재효 선생과 국창 김소희 선생을 기념하며 전라북도 제1호 관소리박물관을 보유하고 있다.

정월에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대보름행사는 보존가치와 독창성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등록됐고, 지난 동계패럴림픽 대회에서는 성화 채화지로 선택되어 고창군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창군이 가진 이러한 천혜의 자연생태환경과 잘 갖춰진 체육인프라는 각종 전국대회와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각 종목별 전지훈련의 메카로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이 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매년 고창군에서 전지훈련을 왔던 봅슬레이 스킨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고창군의 이러한 스포츠 인프라는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

한편, 오는 10월 12일부터 7일간 익산시에서 펼쳐지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고창군에서는 유도과 럭비 종목의 경기가 개최되어 선수, 임원 등 200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경제 활성화 효과를 특히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내년에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고창군에서 38개 종목으로 개최되어 2만여 선수들과 도민들이 고창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체육청소년사업소 박생기 소장은 "앞으로도 전국(국제)규모의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해 청정자연과 세계문화유산과 함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특히 군민들에게 고창군을 찾는 손님에게 친절한 웃음과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66 참여해주시는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원선) (민원선국)

홍보대사 류수영